

조합원사 화합과 단결 통해 경쟁력 강화 수익구조 개선, 경영 패러다임 전환 노력



박정일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은 2월 28일 렉싱턴 호텔에서 제20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 한해 조직확대 및 내실화 운영, 공동사업 지원 다양화, 조합서비스 기능 지원확대, 최신정보 제공 및 홍보활동, 지함인 상생공동 방안 마련 등을 주요사업으로 내세웠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이사직을 맡으면서 지함업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온 정일판지공업 박정일 대표가 제 8대 이사장으로 선임, 앞으로 4년간 조합을 이끌게 됐다.

박정일 신임이사장을 만나 향후 조합 운영 계획을 들어 보았다.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 지함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이사장에 선임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중소기업과 위기에 처한 지함업계를 위해 헌신하라는 소명으로 알고, 조합과 조합원사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정일 이사장은 “조합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는데 주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1983년 정일산업을 창립한 이후, 1992년 현재의 정일판지공업으로 사명을 변경, 다품종소량, 변형상자 등 경쟁력을 확보하며 최고 품질의 골판지상자를 공급해 온 박정일 이사장은 1999년 지함조합 가입 이후, 2005년부터는 이사직으로 재임하면서 조합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 김순재 전이사가 박정일 신임 이사장에게 조합기를 전달하고 있다.

여느 업계처럼 지난 해 지함업계 역시, 원자재 가격 파동 등으로 인한 난제로 인해 파고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터.

박 이사장은 “현재 지함업계는 위기를 넘어선 업계의 생사가 위태로운 극심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다”고 밝히면서 “관련업계간 상생협력이 절실하고 협동하고 단결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조합은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기치로 내걸고 조직확대를 활성화 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펼쳐 짜임새 있는 조직화로 변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박 이사장은 “조합원사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조합원사를 적극적으로 배가시켜 대표적 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지함업계의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시각각 변모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조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일이 중요한 것과 관련, 박정일 이사장은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경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조합의 서비스 기능을 중점적으로 연구, 확대하고 최신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데 앞장서는 등 조합이 가교 역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함업계는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이나 포장산업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만큼 박 이사장은 업계에 대한 애착과 함께 자긍심을 갖고 있다. 조합역시, 지난해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한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 사업에 3년 연속 우수 조합으로 선정되는 등 작지만 내실을 공고히 하고 있다.

그는 “영세기업으로서 겪는 정책적인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의 상황은 분명 힘들고 길을 찾기가 어렵지만 함께 힘을 모으고 단결해서 희망찬 내일로 나가길 원한다”고 전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게 된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은 ‘신기술개발과 자체 역량강화’를 기조로 발전해 온 지난해에 이어, 지함업계 대표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지함인들, 나아가 국내 포장업계 종사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 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박정일 이사장. 상생과 화합을 강조하는 그의 행보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

박초혜 기자